하룻강아지 기도법

(이사야 17:1~14)

1.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2.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3.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룻강아지 기도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룻강아지 기도법'
오늘은 열 나라의 예언 중에서 아람과 북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시 반복하여 앗수르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온 앗수르에 대한 예언과 오늘의 예언은 마찬가지로 멸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성취되는 역사적 내용이 좀 다릅니다. 오늘 17장만의 맥락에서 갖는 의미가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 이스라엘과 아람에 대한 예언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앗수르에 대한 예언을 덧붙였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절 하반부의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같이 되리라'는 말씀은 여로보암 2세 때에 북 이스라엘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전성기를 이루게 되지만, 이 영광이 30년 만에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바로 이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 예언이 나오는 본문을 근거로 해서 '하룻강아지 기도법'이라는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룻강아지는 갓 태어난 어린 강아지입니다. 어린 강아지는 호랑이를 본적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줄을 모릅니다. 경험과 지식이 없는 사람이 철딱서니 없이 나대는 모습을 빗댄 말입니다. 이 속담에 등장하는 하룻강아지를 임마누엘의 복음적 맥락으로 가져와서 패러디해보자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하룻강아지를 범인 줄 알고 무서워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룻강아지 기도법'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룻강아지가 하는 기도법이 아니라, 황소만한 호

랑이가 갓 태어난 하룻강아지로 여겨진다는 기도법을 말합니다. 즉 범처럼 여겨지던 것이 하룻강아지로 여겨지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의미를 생활화하는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기도법입니다. 임마누엘 의미를 생활화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혁명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무지 임마누엘 의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임마누엘의 의미를 생활화할 때에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하룻강아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룻강아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은 생활 속에서 범처럼 여겨지던 모든 일들이 하룻강아지로 여겨진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천만 원의 돈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전 같으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궁리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돈 문제를 범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의미를 생활화하면 문제의 본질이 바뀝니다. 돈 문제 자체가 하룻강아지로 여겨지게 됩니다. 천만 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돈 문제를 하룻강아지로 여길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럴 때에 올바른 생각과 판단으로 돈 문제에 대해서도 바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돈 문제를 범처럼 여기는 동안에는 결코 올바른 생각과 판단과 해결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의미를 생활화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활 현장에서 하룻강아지 기도를 통하여 늘 승리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는 다메섹을 수도로 하는 아람의 멸망 예언이 나오고,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뒤이어서 앗수르의 멸망이 재차 언급됩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순서를 통해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앞에는 아람이 있고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있고 뒤에는 앗수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에서 하룻강아지 기도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북 이스라엘은 선민의 나라입니다. 임마누엘 단어가 발생된 곳은 남 유다였지만, 그 의미 자체는 북 이스라엘의 선민에게도 똑같이 약속된 것입니다. 선민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정하신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올바른 선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응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응답의 필요성은 남 유다는 물론이고 북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요청되었습니다. 그런데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아람과 연합을 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앗수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앗수르가 언급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앗수르를 바다의 파도와 큰물이 밀려오는 것에 비유하였습니다. 이것은 앗수르에 대한 마음의 느낌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대로 남 유다 사람들도 하나님을 실로아의 물처럼 여

겼고, 앗수르는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로 여겼습니다.
역사적으로 앗수르의 멸망의 성취는 남 유다를 침범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앗수르의 산헤립 왕이 남 유다를 침범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산헤립의 조롱 섞인 편지를 받아들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앗수르의 군대 십팔만 오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멸절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것이 앗수르 멸망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라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 예언됩니다.
이렇게 앗수르의 멸망을 기록한 이유는 북 이스라엘에게 들려주기 위함입니다. 북 이스라엘은 앗수르를 두려워하여 아람과의 연합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을 산헤립의 십팔만 오천 명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멸절됩니다. 그것도 누군가에 의해서 패한 것이 아니라 자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북 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섭고 크게 실감하는 앗수르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룻강아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하룻강아지에 불과한 앗수르를 범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산헤립의 십팔만 오천 명의 군대를 하룻강아지로 여기실 정도로 크신 하나님께서는 북 이스라엘에게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이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었다면 범처럼 느껴지던 앗수르는 하룻강아지로 여겼을 것이고 아람과 연합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앗수르를 범처럼 느꼈기에 아람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죄악입니다. 그 결과로 하룻강아지 같은 세상을 범처럼 느낀 것 또한 죄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려 했기에 또 죄악을 지은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죄악이 중첩되어 북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앞으로 있을 앗수르의 멸망을 예언하며 남 왕국 유다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앗수르의 십팔만 오천 명이라는 무적의 군대를 향해 남 왕국 유다가 한 일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산헤립 왕의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들어갔을 뿐입니다. 열왕기하 18~19장에서 이 사건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서 산헤립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까불고 있지만, 실제로 산헤립은 여호와 하

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드러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선민의 나라 왕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여 하나님을 크게 느끼게 되자 앗수르 군대를 하룻강아지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룻강아지 기도법입니다.

이것이 남 왕국이 앗수르에 대처해서 했던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할 하룻강아지 기도의 모습입니다. 성전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범처럼 느끼는 앗수르를 하룻강아지로 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룻강아지라는 말처럼 하룻밤 사이에 십팔만 오천 명이 멸절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대 전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이론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론적인 사실을 믿으면 논리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라가 망하고 사업이 망하고 심지어 내 몸이 죽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의미는 곧 이 피조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영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가지면, 피조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룻강아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대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실제로 잘 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룻강아지에 불과한 문제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발톱을 세우고 뛰어드는 범처럼 느낍니다. 이렇게 이 세상일을 범처럼 여기면 북 이스라엘처럼 행동하기 쉽습니다. 이들이 아람과 연합했듯이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범처럼 느끼는 상태에서 기도한다면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 달라'는 기도는 범 앞에서 벌벌 떠는 철든 강아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북 이스라엘의 기도처럼 '아람과 연합하게 해주셔서 앗수르를 물리치게 해 달라'는 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범처럼 느끼면서 하는 생각과 해결방법을 하나님께 강청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오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산헤립의 십팔만 오천 병력은 무적의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의미를 실감하는 자들에게 이들은 하룻강아지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작게 느껴지고, 세상이 뚜렷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희미하게 느껴지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내게 하나님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받았으니 내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의 크기에 비하면 사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론이 실제 되기 위해서는 히스기야 왕처럼 성전으로 들어가야 합니

다.

세상을 크게 느끼는 나를 번제단에서 죽는 어린 양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이 우리에게는 십자가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크게 느끼고 하나님을 작게 느끼는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계속해서 고백하다보면, 어느덧 범처럼 여겨지던 세상이 하룻강아지로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본래의 크기대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본래의 크기대로 느끼면 마음에는 포만감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마음의 포만감을 '평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마음이 배부르면 세상일들이 하룻강아지로 느껴지기 시작하고 본래의 앗수르의 크기가 파악됩니다. 이럴 때에 비로소 올바른 대처 방안도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이 범처럼 크게 느껴진다면 절대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떠오르는 생각은 모두 오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으로 들어간 이유는 바로 하나님보다 앗수르를 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앗수르를 하룻강아지로 여길 수 있었다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이론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크심을 알았지만 실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론적으로 알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실감하고자 했습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마음을 몇 백번이고 고백하면서 죽기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의 마음에는 어느덧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했고 앗수르는 하룻강아지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의 히스기야 기도의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하나님! 앗수르 십팔만 오천 명을 이끌고 있는 저 하룻강아지 같은 산헤립이 범이신 하나님 앞에서 까불고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문제들이라는 하룻강아지들이 감히 나의 기쁨과 행복과 평강을 깨려고 합니다. 그러나 범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내 마음에 영이신 하나님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설령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기에 비하면 하룻강아지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이 우리의 조국이라 소중할지언정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이 지구에 있는 수백 개의 나라 중에 하나일 뿐이며 우주의 티끌일 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비할 수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룻강아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세상이 크게 느껴진다면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선민답게 십자가를 꼭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선민 아닌 사람은 십자가를 붙잡을 일이 없습니다. 결국 북 이스라엘이 망하지만 7~8절에 남은 자들이 나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 선민은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을 크게 느끼는 나의 마음을 죽은 것으로 인정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범 같이 크게 느껴지는 세상일에 대해 죽게 해주셔서 부활승천하신 주님과 하나 되게 해주세

요. 주님이 하늘에서 아버지를 느끼시듯이 나도 느끼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이고, 세상은 작게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때에 생각하고 행하는 일들이야 말로 올바른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룻강아지 기도법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하룻강아지처럼 여긴 것처럼, 우리가 소원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하룻강아지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삼십억의 흑자를 기대합니다. 삼십억은 범과 같이 큰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크게 느끼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자신에게 생긴 이득조차 하룻강아지로 여기게 됩니다. 사업이 잘 돼도 그것이 기쁨의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이 유무상통을 어렵잖게 이루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느끼지 못할 때에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너무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크게 느낄수록 소중하던 돈이 하룻강아지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내게 소중하지 않으니 남에게 주어도 손해 보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내게서 부정적인 사건사고들만 하룻강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좋은 쪽의 소중히 여기는 세상의 가치들 또한 하룻강아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할 때에 진정한 선민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하룻강아지 기도법으로 어렵고 무섭고 두려웠던 세상의 일들을 범에서 하룻강아지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또 추가적으로 세상에서 소중히 여겼던 가치들조차 하룻강아지로 만들어서,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소원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뿐이십니다. 나의 소유되시고 나의 기업되시는 아버지가 이루고자 하시는 뜻에 의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생각만 해도 즐겁습니다. 하룻강아지 기도법으로 온전한 작용과 부작용을 모두 누림으로써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에 은총을 더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강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